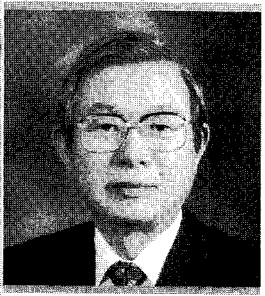


## Omnibus Omnia

- 산업보건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대한산업보건협회  
조 규 상

어느 의과대학 현관에 “Omnibus Omnia”라는 표어가 걸려있다. 라틴어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이라는 글이다.

1978년 당시 소련의 Alma-Ata에서 “일차보건의료사업”을 주제로 UN/WHO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Health for all, All for health”가 표어로 채택되었다.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의료의 혜택을 주자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도 1400개면 중 3분의 1이 의사가 없는 무의면(無醫面)이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요원(의사, 간호사) 확보에 박차를 가하여 무의면이 없어졌고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산업보건분야에 있어서도 같은 형편이었다. 당시 근로기준법(1953년 공포)에 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1961년 공포)이 제정되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의사)를 임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5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5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노동통계(2008)에 의하면 1,430,000개 사업장에서 13,000,000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중 50인 이하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수의 97%, 근로자 수는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도 12,000개 사업장(전체 사업장 수 약 1%)의 근로자 2,000,000명(전체 근로자 수의 약 16%)만이 보건관리자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얼마나 영세·소규모 사업장들 - 큰 사업장에 비하여 재해율이 높고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하에서 일하고 있는 - 근로자들의 보건관리가 소외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보건관리자의 자격도 최초(1961년)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의사로 되어 있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대기환경측정기사 포함)로 확대되었고 의사는 외국과 같이 산업보건의로 임명하도록 되었으나 1995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이 자율화되어 현재 사업장에서는 산업보건의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1996년 대한산업의학회에서 산업의학 전문의제도가 신설되어 전문의 확보의 길이 열렸으나 이들은 산업의학의 연구, 교육, 직업병 확정, 산업보건기관을 책임지는 근간(根幹)으로서 일선사업장 보건관리와는 아니다.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이다. 누구나 스스로 태어난 존재도 아니며 보장된 미래의 약속도 없는 재난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 인류사회와 문화를 건설하여 왔다. 그러기에 인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서로 돕는 사랑의 정신이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불완전하여 빈부의 차가 있고 계급의 차가 있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 분야는 의학분야 중에서도 국민 모두의 건강을 돌보는 분야이다. 환자 개개인을 진료하는 임상분야보다 사명이 크며 보람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 대상은 언제나 소외된 어려운 사람들이기에 희생과 봉사를 필요로 한다. 산업보건도 공중보건의 한 분야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산업보건은 석탄광산 막장에 들어가 탄분진을 뒤집어쓰고 갱내환경을 조사하였고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진폐증 광부들의 폐기능 장애를 진단하여 보상받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임상에도 일반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듯이 사업장 일선에도 산업보건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하려면 사업장의 제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의 위험도 평가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100만개가 넘는 전국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 없이 전문의만 가지고 해 낼 수가 있겠는가.

공중보건은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극히 일부분의 근로자의 보건관리만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도 선진 외국과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건관리를 해주어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인력(산업보건의) 수급의 대책도 없이 특수건강진단과 보건관리대행의사의 자격규제에만 전념하고 있고, 산업의학회는 이들(산업보건의) 양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 모든 의학분야들은 세분화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산업보건분야만이 산업의학 전문의의 희소가치를 위하여 이 분야 일선에서 일하여야 할 의사들의 양성을 제한한다면 이야말로 시대당착이요, 우리나라 산업보건 발전에 어두운 먹구름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소중하고 보람있는 일이 있다. 그러기에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맡고 있는 의사는 성자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다. 뜻있는 의사들이 나와 뒤떨어진 우리나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기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